



# Art

아트인컬처  
October 2014

Interview/  
웰컴 투 코리아!  
글로벌 아트피플 200

Special Report/  
Mr. Sam의 한국미술 탐방기

Exhibition/  
비엔날레 시즌 베스트 36

Art Lab /  
샤넬, 문화를 입다



왼쪽 ·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단색화의 예술〉전의 작가  
김기린 색션 전경

오른쪽 페이지  
국제갤러리 K3관에 설치된  
이우환의 작품 〈선으로부터〉  
앞에 선 세 큐레이터. 왼쪽부터  
틸 펠라스, 알렉산드라 먼로,  
샘 바르빌. 큐레이터 듀오  
샘앤틸은 단색화의 매력으로  
“친숙하면서도 친숙하지 않은  
미학적 태도”를 꼽았다.

## Alexandra Munroe

## Sam Bardaouil

## Till Fellrath 단색화의 귀환, '이제 회화의 시대다'

구겐하임미술관의 아시아미술 삼성수석큐레이터인 알렉산드라 먼로와 큐레이터 듀오 샘 바르빌과 틸 펠라스(이하 샘앤틸)를 국제갤러리에서 만났다. 단색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한 〈단색화의 예술〉전의 기자간담회와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세 큐레이터 모두 처음 단색화를 접하게 된 통로는 작가 이우환이었다. 먼로는 1994년 구겐하임에서 일본 현대미술을 미술사적으로 개론한 기념비적 전시 〈1945년 이후의 일본 미술: 하늘을 향한 비명〉전을 준비하면서 이우환을 알게 됐다. 자신의 단색화에 관한 이해가 일본 모노하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샘앤틸은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열린 이우환의 대규모 개인전에서 아시아의 추상미술에 매료됐다. 먼로는 2011년 구겐하임의 이우환 개인전을, 샘앤틸은 2014년 2월 알렉산더그레이어소시에이츠(Alexander Gray Associates)에서 열렸던 전시 〈모던을 극복하기 / 단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운동〉을 기획했다. LA 블룸앤포갤러리에서 미술사학자 조앤 기가 기획한 또 다른 단색화 전시가 개막을 앞둔 시점이라, 마켓의 단색화 프로모션을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지 질문했다. 셋은 단색화에 큰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먼로는 주요 갤러리 전시는 미술관의 컬렉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외 마켓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은 단색화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색화 열풍(?)을 서구 미술계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와 다른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아시아의 모더니즘 미술을 재조명하는 추세라는 것. 샘앤틸은 “이제 회화가 컴백하고 있다. 개념미술은 파산한 형식주의와 같다. 단색화는 탄탄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작가의 철학과 물질적인 측면이 한 작품에 잘 녹아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셋은 말이 끝나자 하이파이브를 했다. 아시아미술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먼로는 이우환, 차이귀창, 무성, 오노 요코, 야요이 쿠사마 등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샘앤틸은 ‘아트 리오리엔티드(Art Reoriented)’를 운영하며,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레바논관의 큐레이터를 맡았다. 지난 5월에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중동현대미술전 〈상실과 사랑에 관하여〉를 선보였다. / K

